

칼럼

장기채 주필



### 옛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는 '노년의 지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 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배우는 배워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었다.

퇴계 이황(1501~1570)은 하루 두 끼만 먹었다. 반찬도 두 가지, 미역 뿐 일 때가 많았다. 농담 이현보(1467~1555)는 임금의 수십 번이나 불렀지만, 한 번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껌껌도 하지 않았다.

나이 일흔에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75세에 고국으로 돌아온 정음 김상헌(1570~1652)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고향에서 두문불출했다. 보통 살아가는 천지에 순응하고 숨을 거둘 때는 편안했다. 대부분 어진 지는 오례 산다(仁者壽).

조선시대 저명 임금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지만 청백리(219명)

는 68세였다. 고려왕들은 평균 42.3세 까지 살았지만 스님들은 70.2세까지 수를 누렸다. 요즘엔 노인부양세대를 화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다는데, 노후에는 돌아갈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데, 특히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는데, 이러쿵저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씩씩하기만 하다.

과거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의 대가족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知識)은 양적 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知慧)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 사실 인식인데 비해, 지혜는 의미 각성을 의미한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작다고 보지 않고, 큰 것도 크다고 보지 않는다. 물건의 양은 무궁하다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복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 더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지만 노년은 원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탈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았다.

## 社 說

### 획기적 수출기업 지원책 필요

관세청이 21일 4월 1~20일 수출 실적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전례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26.9% 줄었고, 조업일수 등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6.8% 후퇴했다.

수출 급감은 글로벌 수요부진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승용차는 각각 14.9%와 28.5% 감소했고, 특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핵심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17%와 17.5% 뒷걸음질 쳤고, EU는 무려 32.6% 격감했다.

이런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아무리 우량한 기업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어려움에 직면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제위기가 언제 풀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부도를 모면하고 고용과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 쇼크가 진정될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 기업들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

기업들의 경영난은 대면 접촉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여행, 음식·숙박업, 항공업 등 서비스업에서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 전반으로 확산했다. 항공, 조선, 해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기계, 건설 등 기간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이들 업종의 선도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1,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이 도미노 위기에 몰리면서 고용과 투자, 소비, 생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동원해서든 한국은행을 통해서든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직접 매입 방안 등을 포함한 담대한 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재정을 통한 자본 확충과 지급보증으로 국책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의 행동반경을 넓혀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무지가 'N번방' 키웠다

2020년 1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기사가 보도 되었다. 'N번방'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N번방' 사건은 '19년 11월부터 기사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N번방'의 주범적인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방'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N번방' 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다. P2P사이트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는 방식의 범죄들이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 그것이 큰 죄인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없는 무지함에서 계속 발전되어 지금의 이 사건까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몰랐다"라는 무지하다는 한마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럴 수도 있지', '몰랐는데'라며 가볍게 생각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번 'N번방'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공중 화장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

여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직각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피해사실이 밖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피해자들이 더욱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재훈 / 장흥경찰서 정보범죄계 경장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